

조합임원 공개의무 기한은 서류작성 시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갑은 2019년 8월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30일의 사록을 작성한 다음 11월4일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8월 30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 갑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장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15일 기한의 기산 시점은 '서류가 작성된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8월30일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의사록이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그때로부



유투이미지

터 15일 이내 공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갑은 의사록이 작성된 10월 30일부터 15일 이내인 11월 4일에 공개했으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현존하는 서류'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위반이 된 다른 사건에서도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면, 그 '용역계약서'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 조합장 갑은 이사회를 개최한 3분기 끝나는 달(9월)의 다음 달 15일인 2019년 10월15일까지도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데 조합임원 등은 위 서류 및 자료에 대해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등에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 사건의 원심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조합임원 등은 적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 및 자료 작성을 마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은 조합임원에게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그 문리적 해석상 서류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카드할인 혜택, 올해가 마지막?



김지수첩
김정산 (금융부)

11월은 '쇼핑의 달'로 불린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 등 할인 행사가 연달아 있다. 대목인 만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백화점은 물론 이커머스 기업 등 유통업체도 관련 마케팅을 펼치면서 분주한 모양새다.

유통업체뿐 아니라 카드업체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사와 손잡았다. 특정 플랫폼과 카드사가 협업을 단행하면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 1억3000만장이다. 1인당 4.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카드사별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

는 셈이다.

그동안 구매를 망설인 물건이 있다면 절호의 기회다. 카드업체 관계자들 또한 11월 할인은 눈여겨보라고 조언한다. 물가가 오르는 명절과 달리 유통가와 동시 할인을 진행하는 만큼 양질의 물건을 염가에 구매할 수 있어서다. 녀석지 않아도 올해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꿀지 고민중이다.

올해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혜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동결 혹은 인하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줄이면서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 8곳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4조734억원이다. 반면 판매비와 관리 비용은 1조7761억원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43.6%를 차지한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수수료율 조정 여파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수익성이 나빠지면 연회비를 높이고 마케팅에 투입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카드업체의 입장이다. 소비 충동을 참아가며 할인 대목을 기다린 '알뜰족'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체에서는 "금융수익 손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자칫 소비자 혜택까지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야 한다.

/kimsan119@metroseou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지녀라. 48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0년생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본인의 게으름 탓. 72년생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낮아진다. 84년생 새벽 운전 조심함.



37년생 금전 문제로 계산할 일이 생긴다. 49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랑을 베풀자. 61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73년생 부자가 되려면 타인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야. 85년생 여행할 일 있겠다.



38년생 평생 시기 질투가 따르지만 이겨낸다. 50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2년생 화를 낼수록 자신에게 불이익이다. 74년생 부모는 고생하는데 나는 게으름의 극치이니 한심. 86년생 늘 쌓은 덕으로 문제를 해결.



3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51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63년생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75년생 과음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 87년생 짧은 생각이 기회를 잃어.



40년생 분노 조절을 해야 실패가 없다. 52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4년생 마음이 울적하나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76년생 직장에서 호의적인 사람과 논쟁으로 불편을 만들지 않도록. 88년생 술은 판단을 잃게 한다.



41년생 두 가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하자. 53년생 뱀파와의 거래가 있으면 세심히 살펴라. 65년생 재물이 들어오니 기쁜 하루. 77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 기본 충계 잡아라. 89년생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42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54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본다. 66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일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다. 78년생 인연을 맺는데 처음보다 끝이 중요. 90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쉬어라.



43년생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복이 온다. 55년생 신용은 평생을 가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할 것. 67년생 부부간 끝없는 논쟁은 머리만 아프다. 79년생 재물 운이 상승하니 추진해 오던 일이 즐겁게 성사된다. 91년생 마음이 무겁고 울적.



44년생 경거망동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행동. 56년생 지켜온 신용으로 인연이 되어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가 온다. 68년생 관태로움에서 탈피하고자 하나 망신살. 8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계약 소식 온다. 92년생 미련이 남는 일이 발생.



45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어 가자. 57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결과가 좋다. 6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1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93년생 양보는 기본 좋은 일로 연결.



46년생 잘 살펴보면 기사회생(起死回生)이 될 수 있다. 5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7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2년생 급히 뛰다 보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94년생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다.



47년생 새 식구가 들어오니 마음이 흡족. 59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나 가다가 넘어질 수. 7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3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 95년생 나쁜 관계를 일컬어 견원지간이라 했으니 신중함.



김상회의四季

정(情)에 매이지 말길

모든 사람이 배우자 인연이 좋기를 바라지만 연애사 내지는 결혼생활의 복도 뜻대로 되질 않는다. 인연 법이 그런 것을 어찌하겠나? 갈등이 생기거나 잘못된 인연임을 알면 단호히 끊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서 고통을 연장하거나 더 큰 고통을 잉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요즘은 여자들도 자의식이 강해져서인지 예전처럼 순종이나 인내를 미덕으로 아는 시대가 아니라서 대차게 사는 경우가 많다. 가정주부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발각이 나도 담당하기까지 하여 세상 풍속도가 많이 달라져 격세지감을 실감하기도 한다. 상담을 온 67년 정미생 A씨의 경우도 그러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충격과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다. 한 살 아래 무신생인 아내는 남편보다 사주가 크고 일주는 괴강이어서 평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을 터였다. 모르고 몰라도 이런 상대 외에도 남자 인연이 없다 할 수 없는 관살혼잡격(官殺混雜格) 사주인데 지금까지 가정을 이어온 것만 해도 의외였다. 남편은 유약하고 소심한 성품의 신약 사주라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고집과 개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니 본인의 사주를 탓할 수밖에 없다. 가출한 부인은 분명 집에 돌아올 것이나 또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할 것이다. 여자가 관살 혼잡한 경우는 내 집 밖의 남자와도 인연이 오래 가질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다 칠 십을 넘기면 안정을 찾게 되는 운세이므로 지금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매달리면 더 옳아가는 게 사람의 심리기도 하고 정에 매이면 매일수록 마음에 상쳐만 더해지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5	6	8	1	9	8
8	6	9	2	7	1	5	2	9
9	1	8	2	9	8	2	6	7
9	8	1	2	2	6	9	8	7
1	2	6	8	9	8	7	9	
6	8	9	9	8	7	2	1	2
2	9	6	8	1	9	7	8	2
8	9	7	8	2	6	9	2	1
2	8	1	7	9	2	9	8	6

9	1	2	8	2	6	9	8	7
8	7	2	2	9	9	8	6	1
8	9	6	7	1	8	2	2	9
6	8	1	9	2	2	6	9	8
7	9	8	7	1	2	9	2	9
2	2	9	6	8	9	1	7	8
9	6	7	1	9	8	8	2	2
2	9	8	9	6	2	7	1	8
1	2	8	2	8	7	9	9	6